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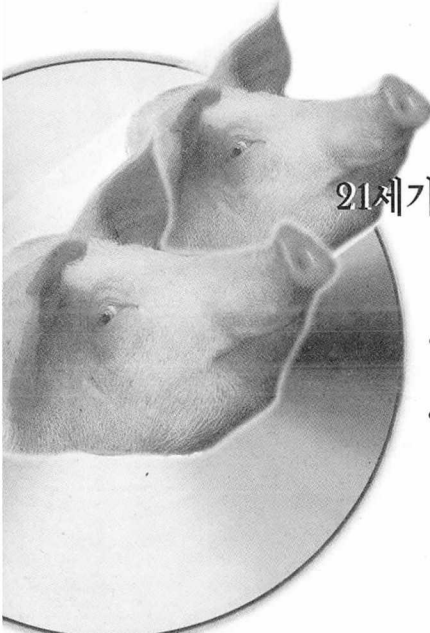
양

돈산업은 세계화 경제를 향해서 활발히 정진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 NAFTA, WTO 체제하에서 거의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성이 높은 돼지고기 생산국들에게 돼지고기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높은 무역장벽과 수송비, 고가의 냉장시설의 필요성, 안전성과 위생 문제 등으

가들은 돼지고기 생산을 보다 전문화하여, 생산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반면에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수입국가들은 생산비가 증가하여 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을 감축하고 수입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돈산업의 세계화에 따른 변화 현상**

양돈산업의 세계화는 지역적 생산전문화의 강화로 나타나고



21세기 양돈산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계 양돈산업 최근 현황과 변화추세**

로 매우 제한된 물량만 수출입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돼지고기 생산의 자급도를 높게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진입한 이후부터 이와 같은 요인들과 생산행태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장벽의 해소는 과거에 크게 규제되어 왔던 외국시장으로 돼지고기 생산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캐나다, 화란 등과 같은 국

있다. 아세아 지역의 양돈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미국은 양돈산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마저도 양돈산업을 장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여 실행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다.

양돈산업의 세계화의 두 번째 의미는 세계적 양돈기업의 태동이며, 이러한 기업들이 범세계적으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메가톤급 양돈기업들은 여



정 찬 길 교수  
(건국대 축산경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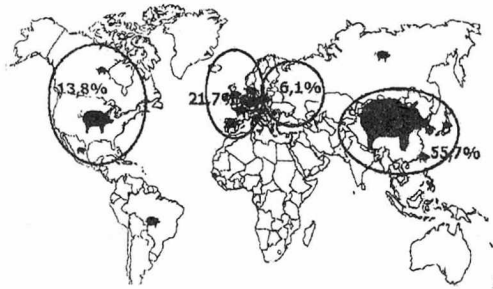
러 나라에 생산과 가공의 기반을 확충하고 전세계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나 유럽국적의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양돈관련 기업을 경영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과 가공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EU는 아세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돼지고기 생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EU에서는 미국에 비하여 높은 비용과 GATT 관련 제약 때문에 생산이 억제되고 있다.

〈그림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계의 주요 4개 지역별 돼지고기 생산비중은 1996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이 55.7%, 서유럽 지역 21.7%, 북미 지역 13.8%, 동유럽 지역 6.1%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이 단일 생산국으로서는 연간 40여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98년의 4개 지역별 돼지고기 생산비중

1998년의 4개 지역별 돼지고기 생산비중의 경우 USDA의 추정치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이 58.9%로 3.2%가 증가하였고, 서유럽 지역이 19.4%로 5.6%가 증가하였으며, 북미 지역이

〈그림1〉 세계 지역별 돼지고기 생산비중



15.7%로 1.9%가 증가였으며, 동유럽 지역은 6.0%로 0.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생산국별로 보면 중국이 동일한 기간에 51.0%에서 53.3%로 3.3%가 증가, 미국이 7.9%에서 10.2%로 2.3%가 증가, 덴마크는 1.9%에서 2.0%로 0.1%가 증가하였고, 대만은 1.6%에서 1.1%로 0.5%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며, 반면에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일본은 1.6%에서 1.5%로 생산이 0.1%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덴마크의 DS(Danske Slagterier)가 관망한 2002년까지 세계 돼지고기 생산은 88백만톤~92백만 톤으로 1997년 80백만톤에 비하여 10~15%가 증가하여, 수요가 동반되지 않는 한 과잉공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돼지고기 생산이 가장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나라에는 환경과 동물건강 규제의 부진과 항생물질의 과잉사용과 선진유전기술이 과잉생

산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그라유럽(Agra Europe)에 의하면 미국의 돼지고기 순수출도 1997년 200천톤에서 2002년 800천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국의 수출은 같은 기간에 150천톤에서 100천톤으로 감소할 것이며, EU의 순수출은 950천톤에서 2002년까지 1,05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덴마크는 양돈산업의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최대의 2개 돼지·소협동조합의 합병에 착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준독점” 혐의로 유럽위원회 조사에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8년 10월 23일 현재 3천두의 돼지가 돼지열병으로 도살되었는데, 앞으로도 5,000~6,000두가 더 도살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화란의 1998년 8월 돼지센서스에 따르면 총 사육두수는 13,540만두로 1997년 8월보다 거의 1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9년 1분기에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 각국의 양돈산업 현황 및 전망

호주양돈산업은 세계화, 식품 안전, 변하고 있는 식관습, 무역 개혁과 경쟁력 심화, 돼지고기 수입 등으로부터 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양돈산업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WTO에 따른 무역자유화와 APEC을 통한 쉬워진 수출시장접근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시장들이 개방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양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양돈산업발전 프로그램에 1천만달러, 돼지고기 가공프로그램에 8백만 달러, 양돈농가 지원 프로그램에 1백만 달러로 총 1천9백만 달러를 호주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 러시아, 한국, 캐나다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신장되어 1995년에는 미국을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전환시켰다. 1995년 초에 러시아에 EEP 지원 저가 부분육 수출이 미국의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대만의 최대 돼지고기 수출 대상국인 일본시장의 공백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일본 돼지고기시장 공략 전개와

이는 미국 양돈산업의 사육규모 확대를 유발시켰다.

중국이 세계 총 돼지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하여,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생산량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대만, 싱가포르, 홍콩, EU 보다는 거의 8kg~10kg가 낮다. 그러나 중국은 한계 수출국의 위치를 지속하고 있다. 5%의 지속적인 연평균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소득증가 유발 소비량 증가 때문에 상당 기간동안 생산량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약 200천톤의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만은 WTO 가입 준비에 따라 장기적 영향에 관한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내가격과 강력한 일본시장이 수출과잉을 지속시킬 것이다. 높은 국내가격은 또한 매우 소량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고가부위의 수입을 초래하였다. 저가부위의 수입은 금지되고 있으나 WTO 체제하에서는 취해질 것이다. 대만의 돼지고기의 순수출은 세계의 경쟁적 가격과 환경규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의 돼지사육 두수는 1995년에 2%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도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이태리의 감소와 프랑스와 스페인의 소규모 증가에도 불구

하고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프랑스는 EU에서 최대의 생산규모와 가장 효율적인 돼지고기 생산국으로 부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순수출국이 되었으며 EU에서 유일하게 돼지고기를 확대 생산한 국가가 될 것이다. 비보조 수출가능성이 프랑스를 1995년에 694천톤의 돼지고기 수출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GATT의 규제수준 490천톤을 초과한 물량이다. 비보조 수출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BSE 관련 국내수요 증가로 향후 2년간 수출은 일시적 감소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멕시코의 돼지고기 생산은 원천적으로 환율변동과 사료용 옥수수 보조종결로 인한 높은 사료비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1995년 중국적인 감축이 1996~1997년 생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점진적 회복과 성장이 멕시코로 하여금 대부분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수입증가는 한계량 수준에 그칠 것이다.

## '98년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 돼 지가격 폭락

1998년에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가장 특이한 변화는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미달러에 대한 화폐가치 절하로 미국

의 거의 모든 돼지고기 생산물에 대한 주문이 취소되었다. 이 사태는 미국 국내시장에 돼지고기의 초과공급을 유발시키고 생돈, 돼지고기, 관련제품 등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미국에서 돼지가격이 1997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10월초에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국내의 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돼지보고서(Hogs and Pigs Report, Dec. 1, 1998)에 의하면 미국의 1998년 12월 1일 총 돼지사육두수는 62.2백만두로, 이는 1997년 12월 61.2백만두보다 1.6%, 1996년 12월 56.1백만두보다 10.9%가 증가하였고, 1998년 9월 63.5백만두보다 2%가 감소한 것이다. 도축두수는 1997년 91,962천두에서 1998년에는 101,044천두로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99,900천두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돼지가격은 45.5kg당 51.30달러에서 31.77달러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1999년에는 45.5kg당 34~37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분기별 가격은 1998년 12월에 19.30+/-달러/45.5kg이 될 것이며, 1999년 1분기 26~29달러, 2분기 37~40달러, 3분기 36~39달러, 4분기 37~40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미국 돼지가격 폭락의 원인

이와 같이 돼지가격의 폭락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내수와 수출수요가 호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도축 가능 여력을 초과하여 돼지가 출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돼지 사육농가들이 모라토리엄과 규제에 추가조치에 관한 정책토의와 의사결정 때문에 앞당겨 사육두수를 늘렸다.

4~5년 동안에 걸쳐 순차적으로 늘려야 할 두수가 12~18개월에 증폭된 것이다. 사육농가들 사이에 지금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사육두수의 증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된 때문이다. 중서부 도축가공공장의 폐쇄는 하루 도축능력을 35,000두 상실하게 되어 사육두수의 확대를 배가하게 되었고, 케롤라이나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역시 증식효과를 촉진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돼지출하를 실질적으로 유발하였다. 따라서 팩커들은 낮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지만 도축능력 보다 더 많은 돼지를 수탁받고 있다.

가격형성의 또 하나의 특성은 돼지고기 소매가격 가운데 양돈농가 수입은 지난 해 내내 수준이하로 형성되었다.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소매가의 37%

가 농가의 수취분, 16%가 팩커, 47%가 소매상의 수취분으로 나타났다. 1998년 10월중에 농가수취분은 18%로 뚝 떨어진 반면에 팩커 수취분은 22%로 상승하였고, 소매상 수취분은 60%로 폭등하였다.

소매과정의 수취분이 이렇게 폭등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돼지고기 생산물의 수요가 매우 높았다. 수요측면에서 수출수요는 30%가 상승하였고, 내수 역시 7.1%나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에 대한 1인당 소비 역시 전국적으로 약 5파운드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급 측면에서 시장에 출하 두수가 부담이었다. 1997년과 1998년 초반에 신규농장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시행과 규제에 증가로 향후 4~5년 동안에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가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고 앞으로는 규모확대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결과 생산농가들은 12~18개월 동안에 4~5년 동안에 이루어 질 증가분을 조기 확대하였다. 이렇게 증식된 돼지가 1998년 중반부터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였다. 동일한 12~18개월 기간동안에 전국의 도축능력이 일당 418,470두에서 382,270두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도축능력의 감소는 중서부 지방의 3개의 가공공장이 폐쇄하였기 때문이다. **양돈**